

꿈과 자리길

리 예 송

교실은 갑자기 지진을 만난듯 설렁대기 시작하였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영문도 모르면서 머리를 이리기웃 저리기웃거리며 덩달아 들썩거렸다.

바로 이때였다.

《원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소리가 교실의 창문을 드르렁 울렸다.

순간 동무들은 벅차오르는 흥분과 터질듯 한 감격을 누를길이 없어 《와!—》하고 환성을 지르며 복도로 옥— 밀려나갔다.

복도는 벌써 사람바다를 이루었다. 헌데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글썽 어깨성을 쌓고있는 동무들의 틈사이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원수님앞에 척 서있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뜻밖에 차려진 영광이 하도 기이하고 놀라와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몸을 마구 잡아흔드는것이였다.

안타깝게 몸을 뒤채이다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애, 정신이 좀 드니?》

어머니가 그윽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정겹게 묻는것이였다.

《엄마도 참, 단꿈을 꾸냈는데…》

비록 꿈이었지만 산처럼 쌓여있던 그리움이 바다처럼 일렁이던 감격의 순간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분한 생각까지 들었다.

《꿈? 어떤 꿈이게?》

나는 방금전에 꾸었던 꿈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의미있는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좋은 꿈을 꾸었구나. 이제 그 꿈이 실현될 날이 반드시 있을게다. 네가 옳은 자리길만 탄다면 말이다.》

《예?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리길이라고 했지. 왜?》

《자리길?!》

나는 그 세글자에 나의 운명이 달려있는것만 같아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나 옷방에 있는 서재로 올라가 사전을 펼쳤다.

사전에는 자리길에 대한 뜻이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물리에서는 물체가 운동할 때 그것이 공간에서 그리는 길이라고 명기되어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역시 연구사인 어머니 한마디를

해도 문제점을 유도한다고.

그렇다면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하루빨리 갈수 있는 자리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어느새 들어오셨는지 어머니가 넋지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 단어가 가지고있는 뜻은 아마 여러가지일거다. 그렇다면 너에게 해당되는 뜻이 무엇일것 같으냐?》

그제서야 나는 무엇인가 락 트이는데 있었다.

나는 최근 졸업을 앞두고 팔방미인이 되려면 모든것을 다 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축구를 좀 하다가는 쉼버리고 기타를 퐁퐁거리다가도 싫증을 느끼고 또 작가가 될 꿈을 펴보겠다고 하면서 글썽을 더듬다가는 그것도 그만두고말았다.

어머니는 내가 브라운운동을 한다며 가볍게 질책하시였다.

멀리 보지 말고 자기 주위를 보자.

이 땅에 자기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모두는 당과 수령께 충정다할 한마음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오직 한길만을 갈것을 굳게 결심하고 자기를 다 바쳤기에 시대와 력사에 길이 새겨지지 않았던가.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준 만리마시대의 선구자들도 오직 자기 령도자를 받들어갈 오직 한길만을 걸었기에 그들모두는 값높은 인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꿈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꿈을 가진다고 자기의 꿈이 꽃피나는것은 아니다.

꿈을 꽃피우려면 인생의 자리길을 옳바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렇다, 단천전역으로 가자.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자리길인것이다.

완공의 그날 우리 원수님 그리도 기쁘시여 만족해하시며 자신의 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나는 웨치리라,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조선청년이라고.

나의 결심을 들은 어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집안도, 내 마음도 모두모두 밝아지는 꿈의 첫 시작이였다.

(구성시 전자고급중학교 학생)